

산악 신화

야쿠시마 섬 안쪽의 산지인 오쿠다케는 옛날부터 신성한 곳으로서 소중히 지켜져왔습니다. 오쿠다케는 달래야 하는 영이 살고 있는 두려운 곳으로 보였습니다. 야쿠시마 섬에는 신과 천둥(천둥의 일본어 ‘가미나리’는 ‘신이 내는 소리’라는 뜻) 같은 자연현상의 전통적인 관계나 섬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신토와 불교의 융합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덴코(天鼓, 하늘의 북)

매월 1 일과 15 일에 오쿠다케 산중에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저녁, 한밤중, 새벽 등 다양한 시간에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언제나 한 산꼭대기에서 다른 산꼭대기로 이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소행이라고 믿고 그 소리를 ‘덴코’라고 불렀습니다. 또 추석날부터 음력 9 월에 걸쳐 매일 밤 피리와 큰북 소리가 들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신들이 즐기고 있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덴추세키

안보 마을 깊은 곳에 있는 다추다케 산꼭대기에는 덴추세키라는 바깥 둘레 60m, 높이 40m 의 거대한 화강암 반석이 서 있습니다. 안보에서는 이 바위의 32m 정도 높이에 뚫려 있는 큰 구멍이 소라고둥을 부는 것 같은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들리면 3 일 내로 강한 바람이 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이 바위를 곤겐, 즉 신토의 신으로 화신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부처님으로 숭배했습니다. 안보의 안보가와 강 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선착장도 있어 불교 승려를 포함한 사람의 왕래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6 세기 중반에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된 후, 일본 토착 종교인 신토의 사고방식과 불교의 사고방식을 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교의 신들이 일본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신들의 모습을 빌려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사고방식으로서 이들이 융합한 상태를 신불습합(神佛習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불교의 신들이 일본의 신들로서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현재에도 역사가 깊은 절에 작은 신사가 모셔져 있기도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보의 북동쪽에 있는 마을 후나유키는 불교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은 듯합니다. 이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덴추세키 밑부분에 있는 제단 부근의 바위 틈이 돌피리 구멍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서풍이 불 때마다 이 구멍은 피리 같은, 윙윙을 연상시키는 소리를 냅니다. 서풍은 폭풍의 전조이기 때문에 이 소리로 어부들에게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나유키 사람들은 다추다케 산을 부처의 화신이 아니라 신토 신들의 주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덴추세키는 야쿠스기 랜드 주차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추다케 산 등산로를 걸어서 가면 왕복 8시간에서 9시간이 걸립니다.

야마히메

야마히메(산의 공주라는 뜻)는 나무의 정령입니다. 윤이 나고 흐르는 듯한 머리카락을 지닌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눈에 비치는 모든 상대에게 미소 짓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야마히메를 만났을 때 그녀가 미소 짓기 전에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목에서 피를 뺏다고 두려워합니다. 야마히메는 설날 및 5월과 9월의 산신 축제 날에 바닷물을 길기 위해 산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날들에는 산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한 청년이 야마히메를 만났는데 마귀를 쫓는 비쭈기나무 가지를 휘둘러 살아남았다고 합니다.